

2009

# 몽골 해외의료봉사

몽골 해외의료봉사 (사랑의 날개 4기-1, 2차)

## - 선 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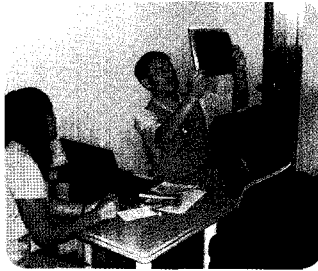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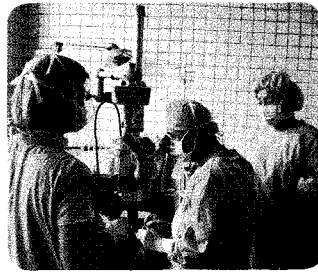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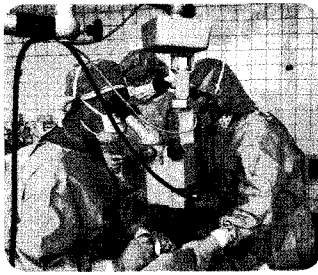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몽골 방향 지역에서 6월과 8월에 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 “2009년도 해외의료봉사사업”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실행하기 위해 단원들의 결의를 다지고자 출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우리는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해외의료봉사 기간 동안 겸손의 미덕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고 우리가 떠나온 후에도 우리의 손길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행동한다.
- 우리는 모두 가톨릭 의료인이다. 우리는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고 단원들 간에 서로 돕고 양보하며 협력한다. 또한 한국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의료봉사를 하여 국위 선양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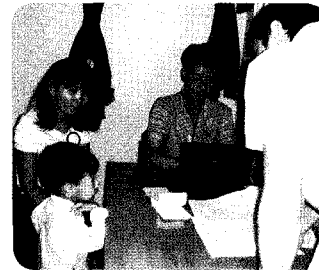
2009년 5월 28일

사랑의 날개 4기 대표 방준석

Medical Volunteer Service Abroad



1차 해외의료봉사 \_ 2009. 6. 5.~ 6. 12.  
6개과 2,578명 진료, 안과 수술 40안  
2차 해외의료봉사 \_ 2009. 8. 28.~ 9. 4.  
4개과 1,333명 진료





## 1차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마은숙 올리안나  
인천성모병원 수술실

앞의 선서의 말씀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주님께서 미약한 저의 능력을 발휘해보라 선택하심에 감사드리며 단원들이 모여 1일 피정과 함께 컴퓨터 교육도 받고 미사 참례를 통해 서로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첫날, 가족과 병원에서의 일상 등등 모든 것들을 잠깐 잊고 오로지 몽골에서의 안과 수술만을 생각하며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과 서먹함, 여러 감



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형이며 얼굴 모습이 닮았다. 인천 공항에서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울란바토르에서 처음 본 입국 심사대에 앉은 직원 모습이 그랬다.

6월 초 몽골에는 아침 5시에 해가 떠서 밤 9시 40분에 해가 졌다. 밤 11시를 넘어서야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새벽미사로 하루가 시작되는데 미사를 마치고 나올 때의 그 상쾌한 공기, 멋진 구름, 드넓은 들판에서 한

가로이 풀 뜯고 있는 말, 양, 염소, 소들... 밤이면 하늘을 수놓던 반짝이던 수많은 별들 모두 달력에 나올 법한 풍경들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다르항 제1병원으로 안과팀은 봉고차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을 하는데 내가 본 몽골의 차들은 우리 눈에 익숙한 우리나라 중고차 들이 많았다. 우리가 도착한 몽골 제1병원 수술실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냉방이 안 돼 무척 더웠으며 수술 기계들을 올려놓을 드레싱 카 뿐만 아니라 기계들을 꽂아둔 멀티 콘센트도 없어 셋팅해 놓은 콘센트를 빼가서 아침마다 다시 셋팅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곳 간호사 및 의료진은 친절했고 말은 안 통하지만 무엇이든 도와주려 했고 따뜻했다. 우리 안과팀은 백내장 28건, 익상편 8건의 수술을 했으며 외래에선 871명의 환자를 보았다. 외래 환자가 너무 많아 가져간 약과 돋보기안경(300개)이 동이 날 지경이었다. 점심엔 숙소인 살레시오 회관에서 수녀님과 단원들이 맛있는 식사를 보내 주셨다. 힘들지만 보람찬 병원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진료를 보신 의료진과 약사님 그리고 실습 나오신 수녀님, 학사님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전 국토가 해발 1,500m 내외의 초원이어서 어디를 가나 지평선이 보이고, 그 초원의 물가에는 산 밑에 하얀 천막으로 둥글게 친 '게르'라고 불리우는 전통가옥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한 가족이 기거한다. 내 마니포 친구네 가정을 방문 했었는데 정말 벽이 없는 원룸식의 공간에서 식구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살레시오 회관에서 떠나는 날 아침은 신부님, 수녀님, 학사님, 꼬마 친구들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들어 모두 아쉬워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순박한 미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돌아오는 날 잠시 들른 울란바토르 시내의 민속박물관은 1971년 혁명 50주년 기념으로 건립되었다. 30,000여 품목을 전시하고 있고 그 중에는 민중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자이승전승탑은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남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비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울란바토르 시내 전체가 보인다.

수흐바타르 광장은 울란바토르시 정부청사 앞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921년 7월 '혁명영웅' 담디니 수흐바타르 장군이 중국으로부터의 몽골의 독립을 선언했던 곳이다.

내가 보고 느낀 몽골은 무한한 잠재력을 숨겨놓은 나라였다.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훗날 몽골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잠재력을 묻어두고 있는 나라임이 분명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 즉 '무지개와 해가 뜨는 동쪽나라'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한족이나 만주족과는 다른 정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세에 영토를 외세에 빼앗긴 동명상련의 마음까지 같으니 오고 가는 걸음들이 빈번해져서 앞으로 한국과 몽골 양국 간의 우호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수술실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인가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택하여 봉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린다.

※ 마은숙 간호사는 사랑의 날개 4기 1차(6월 5일~12일) 몽골 의료봉사 팀원으로 안과수술팀의 scrub 간호사로 봉사했다.

## Mongolia Darkhan - Medical Volunteer Service Abroad

### 참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 (2차 해외의료봉사)



최정진 베네딕도 신부  
성모병원 원목실장

2009년의 몽골은 여전히 거대한 자연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는 느낌, 울란바타르를 제외하면 자연 그대로인, 그래서 딱딱한 일상으로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기에는 오히려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여기며 발을 내딛었다.

두 번째로 접하는 다르항에서의 어린이들은 작년과

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사실 2008년에는 교회 센터에서의 진료라는 환경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그에 따른 간접선교가 주 목적이었다면, 올해 2차는 돈보스코 회관 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보스코 센터와의 긴밀한 접촉과 문화적 교류,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연 체험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었기 때

문이다. 의사가 4명이었기 때문에 진료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들을 시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몽골 방문이 처음인 대부분의 단원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늘 그랬듯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것만으로도 단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의료봉사단의 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른 아침 미사로 시작되는 하루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야 각자의 시간이 주어지는 강행군이었다. 그렇지만 진료시간 중 몽골사람들과 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저녁시간 이후 가정방문이나 어린이들과의 프로그램들, 또 몽골 자연과의 조우, 그리고 사실상 굉장한 무리수였던 마지막 날 국립공원에서의 잠깐의 야영은 단원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리라 생각한다.

몽골은 경제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아직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물질의 관점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 행복의 참 조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제3세계에 대한 의료봉사는 시혜적 행위가 아님을 되새겨본다. 유



한한 인간이 결국 만나게 되는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서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각자 귀한 시간을 쪼개어 참여한 2차 의료봉사 단원들의 궁극적 결실은 모두가 작지만 아름다운 마음들을 간직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과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리라.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단원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을 기억들이 지치고 힘든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Mongolia Darkhan - Medical Volunteer Service Abroad

# 2009년 몽골 해외의료봉사 진료 결과

### 1차 몽골 의료봉사(6월 5일~12일)

표1 - 진료 결과: 총 2,578명 진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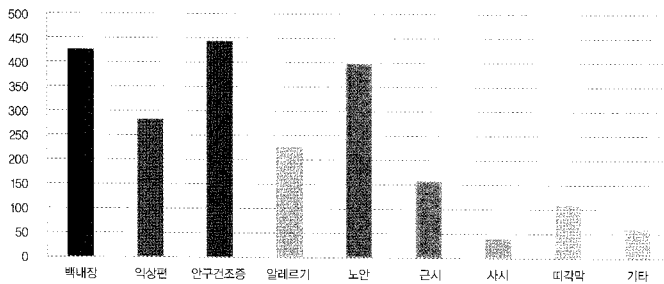
과별	날짜	6/6	6/7	6/8	6/9	6/10	6/11	과별총계(명)
내과		83	122	173	106	98	43	625
외과		89	133	183	129	127	61	722
신경외과		0	0	0	52	52	32	136
산부인과		0	0	0	57	65	46	168
소아청소년과		0	0	0	0	0	55	55
안과		183	249	313	57	41	28	871
총합계(명)		356	504	669	401	383	265	2,578

표2 - 안과 진료 (단위 : 명)

날짜	6/6	6/7	6/8	6/9	6/10	6/11	합계(명)
안과 외래	183	249	313	57	41	28	871

표3 - 안과 진단별 분류 (단위 : 건)

날짜	백내장	익상편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결막염	노안	근시	사시	따각막병증	기타	날짜별 총건수
6/6	120	80	100	20	100	20	25	20	10	495
6/7	140	80	150	60	140	40	4	35	15	664
6/8	100	90	120	100	120	70	3	35	15	653
6/9	30	14	35	23	20	12	3	8	5	150
6/10	20	10	20	16	12	5	2	9	7	101
6/11	10	7	14	10	7	10	1	3	4	66
질병별 총건수	420	281	439	229	399	157	38	110	56	2,129



수술명	건수
익상편	8안
피질제거술	4안
백내장(KP:12 EP:16안)	28안
돌보기 처방	300명
2010년 수술예정	7명

## 2차 몽골 의료봉사(8월 28일~9월 4일)

표1 - 진료 결과 : 총 1,333명 진료 (단위 : 명)

	총환자수	초진	재진	방문진료	가정의학과	신장내과	공통내과
8/29	188	175	13	12	83	41	52
8/30	272	269	3		119	74	79
8/31	307	248	59		130	92	85
9/1	289	244	45		120	97	72
9/2	277	239	38		109	90	78
합계	1,333	1,175	158	12	561	394	366

※ 산부인과 암 검사(1차) 후 Follow-up 76명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영훈 교수, 의정부성모병원장)에서는 2009년 몽골 의료봉사를 1차(6.5~12), 2차(8.28~9.4)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엔 25명의 단원을 파견하여 6개과(내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2,578명 진료를 하였으며, 안과 수술(익상편, 백내장)도 40안 하였다. 2차는 21명의 단원이 파견되어 4개과(방문진료, 가정의학과, 신장내과, 일반내과) 1,333명 진료를 하고 돌아왔다. 1, 2차 총 진료 인원은 3,911명이다. 해외의료봉사단은 9월 11일 이동익 회장 신부와 임원진을 비롯한 1, 2차 단원 49명이 서울성모병원 교직원식당에서 보고회 및 자체 평가를 갖고 개선점과 차기 봉사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1차 진료에서 발견된 4년 전 화상을 입은 투름만다흐(남,12)를 초청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수술 가료 중에 있으며, 뇌하수체종양의심환자 악왕수령(남,22)의 검사도 진행 중이다.

기간	봉사장소	단원수	진료과	총 진료수
2009. 6. 5 ~ 12(1차)	몽골 다르항	25명	6개과	2,578명
2009. 8. 28 ~ 9. 4(2차)	몽골 다르항	21명	4개과	1,333명
				3,911명

# 2009년 몽골 해외의료봉사 단원

## 1. 1차 단원

성명 세례명	소속 및 직함	분야	
Fr.이용희 사도요한	서울성모병원 원목부실장	지도신부	
신완식 루카	가톨릭의료협회 의료봉사자문관 / 요셉의원 의무원장	의사 (8)	
김영훈 루카	해외의료봉사단 단장 /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채혁 스테파노	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 인제대백병원 신경외과		
최대웅 루카	서천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장		
박래옥 베네딕도	통일산부인과 원장		
정성근 마티아	성모병원 안과		
강승범 사도요한	성모병원 안과		
송지혜 켈마	서울성모병원 안센터		
김정목	서울성모병원 안센터		기사
박미숙 비비안나	서울성모병원 내과병동		간호사 (8)
마은숙 올리안나	인천성모병원 수술실		
김효정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소아과		
김미진 데레사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신경외과		
김응선 엘리사벳씨튼	진남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		
한금화 레아	서울성모병원 외과중환자실		
김수현 라파엘라	인천성모병원 외과중환자실		
Sr.전선미 마리아글라렛	대구천주성삼병원		
방준석	서울성모병원 약제팀	약사 (3)	
송미경 요셉피나	가톨릭약사회	조리(1)	
배선희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약제팀		
Sr.박숙 펠리치타	서울성모병원 영양팀장	행정 (3)	
Sr.박영혜 마리빅토리아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전양미 안젤리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이기찬 시몬	살레시오회 봉사자		

※ 사제 1명, 의사 8명, 기사 1명, 간호사 8명, 약사 3명, 행정 3명, 조리 1명, 통역 16명, 총 41명

## 2. 2차 단원

성명 세례명	소속	직함
Fr.최정진 베네딕도	성모병원 원목실장	지도신부
최환석 요셉	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4)
송봉규 베드로	천안교도소 일반외과 의무관	
박철휘 요셉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이경혜 글로리아	상계예일내과	
이정옥 올리안나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응급실	간호사 (6)
박하나 로사	인천성모병원 내과중환자실	
유희정 세라피나	창원파티마병원 일반간호	
고혜란 도미니카	인천성모병원 소아과병동	
한승희 마리스텔라	대구보훈병원 내시경실	
손나영	부산성모병원 내과	
백정미 로사리아	전) 의정부성모병원 약제팀	약사 (3)
Sr.박해자 벨라뎃다	의정부성모병원 약제팀장	
박민정 레지나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약제팀	조리 (2)
이영주 엘리사벳	전)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서은경 아가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일반봉사 (4)
백현 대건안드레아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심사위원	
박주현 아가다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임상병리사	
이연미 이레네	창원파티마병원 사회복지사	
이대윤 프란치스코	서울산업대 조형미술학과 교수	행정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 과장	

※ 사제 1명, 의사 4명, 간호사 6명, 약사 3명, 조리 2명, 일반봉사 4명, 행정 1명, 통역 9명, 총 30명